

청와대 개편·개각 호남인사 중용될까

# ‘호남총리’ 거론 속 실현 미지수

문성우·이귀남 법무장관 하미평

“호남 민심 아우를 인사 발탁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주말 이전까지 개각을 단행키로 함에 따라 인적쇄신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적쇄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형성된 ‘화해와 용서’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민통합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동안 외면됐던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인맥의 중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최우선 관심사는 ‘호남 총리’의 현실화 여부. 일단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30일 탈당과 함께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호남 총리’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출신인 김종민 전 의원과 강현욱 전 전북지사, 진남 부총리,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만한 인물이라는 부정적인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권 및 지역 일각에서는 호남 총리 기용과 관련, ‘무늬만 호남’인 사람을 총리로 기용했다가는 오히려 국민통합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통합형 내각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호남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고 국민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하듯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 인물 2~3명을 총리 후보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여성 총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관련도 관심사 사항이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진에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민심을 전달할 창구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장, 유일한 지역 출신 수석 비서관인 강운구 사회정책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소한 수석 비서관 가운데 2명 정도는 지역 출신 인사가 중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민심의 창구였던 정용화 연

설기록비서관의 수석 승진 가능성과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의 민정수석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개각에서 지역 인맥 중용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다.

지역 인맥 가운데 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전 검찰총장이 새로운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귀남 전 법무차관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정남준 전 행자부 차관 등 호남 인맥을 이어갈 수 있는 전직 관료 출신 인사들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 인맥이었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년 6개월동안 재임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높으며 장태령 농림수산부 장관은 쌀 직불금 및 멜라닌 파동 등을 무난하게 극복했다는 점에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진정한 탕평인사를 위해서는 무늬만 호남인 인사를 내세워 정치적 효과를 노리기 보다는 호남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참모진 인사 및 개각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총청권 정치판도 변화 불가피

심대평 “선진당 탈당…총리직 안맡겠다”

‘총청권 총리설’의 진앙지였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가 30일 “이회창 총재와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작년 1월 자유선진당 창당 이후 심 대표와 이회창 총재는 ‘총청 총리설’을 놓고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온 데 대해 심 대표가 탈당을 통해 이 총재와의 불편한 동거 관계를 청산한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다시 총청 총리론이 불거지자 이 총재는 “당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고 심 대표의 처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심 대표는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이 총재와 갈등을 빚어왔던 심 대표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를 겨냥, “아집과 독선으로 당 운영을 왜곡하고 사당화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신의를 지킬 만큼 지켰다”면서 공식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또 현 정부로부터 세 차례 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공개하면서 “(이번에) 안받는 것은 도리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분열의 정치공작 세력으로부터 매도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었다”며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 대표가 이 총재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고 탈당함에 따라 향후 총청권 정치판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 대표의 탈당으로 자유선진당의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고, 심 대표가 총청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축한다면 총청권 맹주 자리를 놓고 각축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 대표는 창당 가능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나 “새 정치 패러다임 창조에 동참하는 정치 신인과 동행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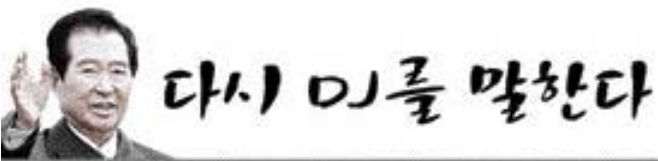
이번 탈당이 향후 총청발(發) 정계 개편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발언과 무관치 않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청권 공략의 교두보가 필요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심 대표와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심 대표 탈당에 대해 선진당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야권 파괴 공작 결과”라고 비판했다.

연습뉴스

# “핍박·고난속 화해·용서 추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지난 24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을 회고 기자회견’ 도중 몇 번이나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썼다. 끝내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위대한 지도자이자 인생의 사표(師表)를 떠나보내면서 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19년 차이의 선배배 간이지만 그 전까지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청와대 시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 전 대통령을 지켜본 박 지사는 “김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고 당시를 돌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DJ의 입’

“겉으로 근엄, 속으로 눈물 많고 섬세한 분”



지난 2000년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평양방문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준영 당시 공보수석 겸 대변인이 청와대 정원에서 이아기를 나누고 있다.

이쳤다. “외환위기 당시엔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진정으로 고통스러워 했다. 어느 날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자살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 일화를 소개한 박 지사는 “겉으로는 근엄하지만 속으로는 눈물 많고 섬세한 분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소식에도 눈시울을 적셨다. ‘지난 100년 동안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가 됐다.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통일이 오게 됐다’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엔 ‘내 평생 가장

긴 날이었고, 가장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날이었으며, 가장 보람을 느낀 날이었다. 첫 먹던 밥까지 냈다’고 털어놓았다. 피곤했지만 보람에 찬 표정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8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얼마나 힘들고 감격스러웠으면 저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전을 기억했다.

박 지사는 김 전 대통령이 매우 소박하고 진지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분의 겸손함은 유명했다. 화장지 한 장도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썼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할 때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경우가 절대 없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밴 분이다. 청와대 식단도 반찬은 몇 개 안 되고 간소했지만, 체질적으로 건강하고 음식을 많이 드셨다. 사색과 독서, 산책을 즐겨했고, 특히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밤늦게까지 역사책을 들여다보며 지혜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박 지사는 “비서관으로서 위대한 지도자를 모셨던 데 대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 화해와 용서, 통합과 평화 등 김 전 대통령의 유지와 그가 꿈꿨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심장마비 환자 발견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하게 되면 생존율이 90%이상

심장마비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 HeartPlus입니다.

다들 “미용”입니다! 피플과 봉사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다들 믿고 있는 기업이 꼭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1677-8615

nanam 주니발테크